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음식의 전통과 인간의 염치

경상북도 영양군에 살았던 정부인 안동 장씨(1598-1680)가 1670년경에 저술한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식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헌이다. 이전의 식생활 관련 문헌들은 남성에 의해 쓰였고, 상고주의를 중시했던 당시 사대부의 관행상 중국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음식디미방'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수십 년 동안 한 집안의 살림을 맡아 왔던 주부가 70세에 이르러 후손들에게 조리법을 전해 주기 위해 쓴 조리서다.

때문에 17세기 후반 조선과 경상북도 북부 지방의 음식과 식재료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 또한 여성이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은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어 문장 자체가 매우 친근하고 아름답다. 아울러 당시의 음식과 식재료의 명칭 그리고 조리과 관련된 동사나 형용사 등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우리말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음식디미방'에는 총 146가지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리법에 등장하는 육류의 활용에는 지금의 식생활과 몇 가지 큰 차이가 난다. 우선 개장국, 개고기 찜, 개고기 نرم미 등 개고기를 재료로 한 조리법이 여섯 가지나 기록

되어 있다. 이는 17세기에 개고기가 육류로서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방증한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의 비중은 의외로 낮아 두 가지 밖에 없는데 멧돼지와 집돼지를 구분해서 조리법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육류 중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식재료는 꿩인데 총 열다섯 가지 조리법에 등장한다. 당시 꿩은 야생에서 흔한 조류를 조신 왕실에서는 꿩을 잡는 '옹방'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로 여겼다. 가장 독특한 식재료는 '옹장'이라는 곰 발바닥이다. 지금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1611년 허균의 '도문대작'에도 기록이 보인다. "옹장은 산골에 모두 있다. 음식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잘못하면 제맛을 잃어버린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곰 발바닥이 귀하지만 공급 가능한 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을 통해 나는 전통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한다. 의식주 가운데 음식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건축과 의상은 어떤 형태로든 그 실체가 남아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존재한다. 하지만 음식은 처음에는 형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분해되어 사라진다. 형태가 없으니 문헌을 통해 실체를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왜곡과 오류의 여지가 많은 유산이다. 이 때문에 '음식디미방' 같은 조리서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레아 조선시대의 맛과 미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음식에서 전통의 개념에는 변화와 혁신이 내포되어 있다.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고수하는 교조주의는 과거의 음식을 낡은 유물로 전락시킨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듯 전통 역시 당파성을 가진다. 이념, 종교, 가치관, 환경에 따라 식재료와 조리법은 얼마든지 재해석되고 변용된다. 따라서 음식은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극복할 때, 다음 세대로 물려줄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음식의 전통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식문화를 가능케 한 토양이 되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남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속명이다. 이러한 속명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도리는 염치다. 염치는 윤리다. 수렵시대에 동물을 포획하는 것과 오늘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는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음식디미방'의 음식을 복원하

기 위해 웅장이나 개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다. 전통의 복원과 계승 역시 당대의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먹거리 문제에 있어 강력한 윤리적 통제는 제 생명을 유지해주는 자연과 오래도록 공존하기 위한 인간의 필연적 선택이다.

2002년의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시작된 중간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스는 사향고양이, 메르스는 낙타가 중간숙주임이 밝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천산갑이 중간숙주일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천산갑은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력이 좋다는 소문 탓에 가장 많이 밀매되는 동물 중 하나라고 한다.

인간이 염치를 모르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 전 세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과거 인류의 재앙을 구원한 것이 음식이라면, 앞으로는 음식이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먹거리에 있어서 윤리는 한 국가의 전통과 식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당위가 되었다.

<맛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감염병과 눈



강석준 보리안과병원 원장

도시가 뚝뚝로 전멸되기도 했다. 물론 그때는 위생 관념도 희박했고, 지금처럼 원인 균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기술도 없었을 시기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잡식해 가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 잦아지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입했다는 것이다. 환경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종 코로나(2019-nCoV)는 인체 감염 7개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코나 입을 통한 전염은 인지하고 있지만, 눈을 통한 전염에 대해 이해하고 문의를 많이 한다. 바이러스는 피부로는 침투하지 못한다. 하지만 눈, 코, 입 안 점막은 피부보다 약한 부위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다. 눈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때 등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이 눈의 결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마스크가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타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즉, 자신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다른 사람에게 침이 튀는 것을 막아 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손을 자주 씻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기급적 눈을 손으로 비비지 않아야 한다. 이는 모든 감염병에서 동일하다. 간혹 뉴스에서 중국인들이 보안경이나 임시방편으로 수경까지 착용하며 눈을 보호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잘 관리하기도 어렵고, 오래 착용하는 것도 힘들며, 감염 가능성은 일반적인 경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안과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 있다. 엔테로 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 '눈병'이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최초로 성공했던 그해 여름 미국 동부는 눈병이 엄청나게 창궐했는데, 토끼 눈처럼 붉어지고 심지어 피멍이 든

것처럼 붉게 보였으며 눈 뜨기도 힘들고 눈에 생긴 이물감으로 잠자기도 힘든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질환의 전염 정도였다. 한 집에 한 명이 발병하면 거의 모든 가족에게 사흘 이내에 전염되었던 것이다. 이 질환을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눈병(유행성 결막염)이 이런 심한 양상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손을 잘 씻고 개인용 물건, 특히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수많은 눈병 환자를 대하는 안과 의사가 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손 씻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고 해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감염도 감염이지만 위축된 경제 활동에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새봄에는 편하게 산책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을 즐기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기고

나는 '기생충'이었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 시인·연극인

충' 수상을 계기로 기생충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5·18 이후 동창회나 향우회에 나가면 속스럽게도 기립 박수를 받았었다. 그들은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나의 작은 투혼과 열정을 인정해 주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때로는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비판하는 이도 있었다. 5월 관련 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 이용당한다는 것, 당사자 주의가 팽배한 채 나눔과 배려와 소통의 주먹밥 정신이 훼손돼 간다는 것 등등.

필자는 미려하나마 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금은 연극으로 5월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무대 100만 평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을 때, 광주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도시 디자인을 생각하며 절반이

라도 녹지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을 했다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상무대 영장이 보존되고 세계적인 도시로 평가받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다.

둘째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부모님에게 긴 고통과 한숨을 드리고, 아내를 직장으로 내몰며 교도소까지 면회 오게 한 점, 여동생을 5·18 유가족과 결혼 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자식들에게 아버로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잘못이 뼈에 사무친다.

셋째는 동지들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 83년도에 유가족들에게 묘지 이장 음모를 획책한 당국은, 유훈 정책의 일환으로 부상자들의 취업을 알선했다. 그당시에 온건파의 대부분은 수용했으나, 강경파 회장을 맡았던 필자는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

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다. 늦게나마 사과드린다.

2017년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 정국을 연출하기 전까지 정치권은 무능했고, 상충부는 부패했으며 일부 언론은 꿀맛만을 쫓았다. 그러니 지금도 제1야당의 대표란 자가 '무슨 사태'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부끄럽다. 아직도 적폐는 청산되지 않은 채, 기득권층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단죄할 때가 왔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역사 속에 한국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켰듯이, 오는 4월 15일에는 '롯데'로 적폐 세력들을 응징하고 기생충 같은 존재들을 박멸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날이 왔으면 한다. 기생충 없는 세상을 그리며.

社說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왜 늦어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광주 지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사스 사태나 메르스 사태 이후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원단이 인 데 이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지지부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8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할 바 있다. 국비 408억여 원을 지원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36개 음압 병상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일반 환자와 중환자용 격리 병상 및 검사실 등 각종 시설을 활용해 신종 감염병 등을 진단·치료하고 호남권 공공·민간 감염병 대응 인력 등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와 지역 의료계의 소극적 대응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

어지고 있으며 현재 광주·전남에 음압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은 전남대학교병원 7개, 조선대학교병원 5개 등 12개에 불과하다. 당초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올해까지 시설을 갖추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22년께로 연기된 상태다.

광주시와 의료계가 전문병원 선정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설계 심의와 입찰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2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한 것이다. 또한 감염내과 의사 등으로 구성되는 감염병 관리지원단 역시 '녹장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지원단이 없는 곳은 광주 등 여섯 곳뿐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체감했듯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의료계는 속히 전문가들과 협의해 지원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급 100년 광주 상수도 노후관 교체 서둘러야

올해는 광주시에 상수도가 보급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수도물 보급률이 99.91%에 이를 정도로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노후 상수도관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누수되는 수도물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의 우수율(有收率)은 2018년 기준 87.68%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85%)보다는 높지만 서울(95.8%), 대전(93.6%)에 비해서는 낮다. 우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도물이 누수되지 않고 가정까지 도달해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2004년 80%를 넘어선 상수도 우수율이 아직도 90%를 밑돌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꼽히고 있다. 광주 상수도의 총 연장은 3933km인데 이 중 30년 이상 된 관로가 14.57%이며 20년 이상 된 관로도

33.69%나 된다.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노후 관로인 셈이다. 이는 그동안 광주시가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 확장과 정수장 공사 등에 우선 투자해 온 탓이다.

이 때문에 상수관로의 노후화는 잇단 수도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서구·남구·북구 일부 지역에서 수도물이 어물질이 섞여 나오거나 흐린 물이 나오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는 우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 등 관로 정비 및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수도물 누수로 인한 손실은 수도 요금에 포함돼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도 우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제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때다.

無等鼓

들을 때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는 노래들이 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동요 '섬집 아기'도 그런 곡 중 하나다. 꼭 가사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비올라로 연주하는 '섬집 아기'를 듣거나, 낮게 깔리는 첼로 연주를 접할 때도 같은 감정을 느끼곤 하니까.

어제 운전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의 '섬집 아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다. "이 노래를 들으면 늘 눈물이 난다"는 진행자의

'너를 만났다'

말처럼 느린 피아노 선율의 '섬집 아기'는 마음

을 아련하게 했다. 특히 원재연이 이 음악을 꼭 들려주고 싶은 이가 있다고 했을 때 잠깐 났던 '영성'이 떠올라 먹먹해지고 말았다. 그가 언급한 이는 '나연이 엄마',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었다. 지난 7월 방영된 'MBC스페셜 특집-가상현실(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나연이를 엄마 장지성 씨가 가상현실로 만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었다. 제작진은 휴대전화 속의 사진 및 동영상에 저장된 나연이의 표

정·모임·목소리를 분석한 뒤, 160대의 카메라로 대역 모델의 얼굴 표정과 몸을 동시에 촬영해 기본 뼈대를 만들고,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모임을 만들었다.

방송 며칠 후 절박한 영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접했다. 딸의 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미역국을 끓여 주고 싶었던 엄마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나연이를 만났다. "엄마 어디 있었어? 내 생각 했어?" "땀날 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끓여 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만 VR기기를 쓴

엄마는 나연이를 안거나 만지지는 못한다. 한 마리 나비가 돼 떠나는 나연이를 보며 엄마는 "웃으면서 나를 불러 주는 나연이를 만나 아주 잠시였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사람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길 바라"며 촬영에 응했다. 엄마의 말처럼, 많은 이들이 그리운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위로받았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